

차례

이만제단 시대 5부

一. 승리자란?

二. 승리자는 조희성님

三. 승리자, 동방의인, 감람나무는

같은 한 분이다

이상 기록한 내용이 밀실에서 조희성님이 구세진인 승리자로 출현하시는 모습이다. 6000년간 긴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해산의 수고 끝에 완성의 승리자 구세주로 출현하시는 데 성공을 거두시는 감격스런 장면인 것이다. 나라고 하는 것이 마귀요 선악과이며, 나라고 하는 의식이 죄의 근원임을 인류역사상 처음으로 깨우치신 조희성님은 철저히 나를 멸하여 없애기 위해 이상과 같은 피눈물 나는 투쟁을 하였던 것이다. 생전 처음 들어보는 이와 같은 투쟁의 결과로 얻어진 승리자는 천상천하에서 가장 위대한 영광된 일인 것이다. 승리자란 바로 이와 같이 하여 나타나시게 되는 분인 것이다. 이와 같은 기가 막힌 투쟁 끝에 승리한 분이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이다.

이와 같은 기가 막힌 투쟁의 과정을 누구보다도 제일 잘 아시는 영모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다. "2년 전까지 이긴자의 정체를 숨겨왔다. 발표할 때까지는 누구도 눈치 채지 못하게 가리고 신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어려운 고비를 넘겨(82.2.22)"

승리자가 되신 후 조희성님은 밀실 뒷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다. 그런데 산천 초목들이 다 승리하신 조희성님을 향해 춤을 추면서 절을 하는 것이다. 조희성님은 믿을 수가 없었다. 산천초목이 인간보다 먼저 승리하신 구세주를 알아보고 감격하면서 경배를 드린 것이다. 풀포기들은 위 아래로 뛰면서 춤을 추는 바람에 풀뿌리가 흙에서 패어 나와 있었다. 소나무는 허리를 굽혀 절을 하다가는 이쪽 가지는 위로 저쪽 가지는 아래로 내려가는 식의 춤을 춘다. 조희

성님은 직접 그와 같은 일을 겪으면서도 믿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조희성님이 나무와 풀들을 향해서 "알았다. 알았으니 이젠 그만 하렴."하고 말을 했더니 일제히 동작을 멈추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일이 있을 것을 불경에는 이미 예언해 놓고 있는 것이다. "菩薩摩訶薩坐道場時(보살마하살좌도량시) 一切世界草木叢林諸無情物(일체 세계 초목총림제무정물) 皆曲身低影嚮向道場(개곡신저영귀향도량) 是爲第四未曾有事(시위제사미증유사), 大方廣佛華嚴經(대방광불화엄경) 59권 離世間品(이세간품) 第38-7" "보살마하살이 도량에 앉을 때에 온 세계의 모든 풀과 나무와 숲과 무정물들이 몸을 굽히고 자세를 낮추어 도량을 향하니 이를 일러 4번째의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다."

이 감격스러운 장면이 온 인류는 두 손을 높이 들고 "승리하신 구세주 조희성님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목청을 높여 합창을 해야 할 것이다. 무릇 '승리자란 나'라는 주체의식이 사람의 영입을 깨닫고 나라는 주체의식을 멸하고 하나님으로 승리의 부활을 하신 분이 다. 이렇게 이기시어 인류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영생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 즉 영생의 대도를 활짝 여시는 구세주가 되신 것이다.

三. 승리자, 동방의인, 감람나무는 같은 한 분이다

지금까지 승리자 감람나무 동방의인에 대해서 상고해 보았다. 지금까지 상고한 내용을 다시 한 번 상고해 보면 이분들이 각각 다른 분들이 아니고 같은

한 분이라는 것을 대강 짐작이 되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다 같이 박태선 영모님과 조희성 주님을 결부시켜서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또 의문이 나는 것은 왜 그 주인공의 존재들이 한 분을 말하지 아니하고 두 분을 말하는지이다. 이와 같은 문제는 지금까지 누누이 설명을 하면서 왔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는 독자들이 많을 것이다. 주인공은 한 분이 출현하는 것이 아니고 세 분이 출현한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세 분이 한 분으로 합일되어 일체로 출현하시는 분이 구세주인 것이다.

그렇다면 또 의문이 생긴다. 그것은 세 분이라고 하면서 두 분에 대해서만 결론을 내리고 나머지 한 분에 대해서는 일체 설명이 없기 때문에 이상하여 일체로 출현하시는 분이 구세주인 것이다. 그렇다면 또 의문이 생긴다. 그것은 세 분이라고 하면서 두 분에 대해서만 결론을 내리고 나머지 한 분에 대해서는 일체 설명이 없기 때문에 이상하여 일체로 출현하시는 분이 구세주인 것이다. 그렇다면 또 의문이 생긴다. 그것은 세 분이라고 하면서 두 분에 대해서만 결론을 내리고 나머지 한 분에 대해서는 일체 설명이 없기 때문에 이상하여 일체로 출현하시는 분이 구세주인 것이다.

그러면 "승리자 감람나무 동방의인은 같은 한 분을 가리킨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밝혀 보기로 하였다. 이분들을 말하는 대명사의 명칭은 다르지만 한 분의 구세주를 가리키는 대명사인 것이다. 그 이유를 성경적으로 밝혀보기로 한다.

승리자는 감람나무다

"내가 이스라엘(승리자)에게 이슬(감람)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히리로다. 그 가지는 퍼져서 아름다운 것이 감람나무와 같고(호14:5-6)"

해설 : 이스라엘 즉 승리자에게

전도관 역사는 구세주를 출현시킨 역사였다 (24회)

전도관 제8편

이만제단 시대 제5부

- 1. 이슬은혜인 감람을 내리고,
2. 승리자는 백합꽃이고,
3. 승리자는 감람나무와 같다라고 했다.

이 성경 구절 내용은 '승리자는 감람나무다' 라는 내용이다.

승리자는 동방의인이다 (두 분의 받은 권세가 같다)

1. "이기는 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니 내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니(묵2:26)"

2. "누가 동방에서 한 사람을 일으켜 의로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나뇨 열국으로 그 발 앞에 굴복케 하며 그로 왕들을 치리하게 하시되(사41:2)"

해설: 1.의 승리자의 권세인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2.의 동방의인의 권세인 열국 왕들을 굴복시켜 치리하는 권세는 같은 왕중왕의 권세이다. 고로 이 두 주인공의 받은 권세를 보아 같은 한 분이 됨을 알 수가 있다.

위를 정리해 보니 승리자=감람나무=승리자=동방의인이 되어 이 세 명칭은 같은 한 분을 말하는 것이다.

승리자 감람나무 동방의인은 구세주 하나님이다

"내가 이스라엘(승리자)에게 이슬(감람)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같이 피겠고(호14:5)"

해설: "구주는 산곡의 백합(호14:5) 명랑한 새벽별(묵2:28)"(합동찬송 84장) 이라고 찬송을 계속 부르고 있는데 이것은 구세주는 백합화라는 것이다. 그

러므로 승리자=감람나무=동방의인=백합화=새벽별=구세주가 되시는 것이다.

4) 구세주는 예수가 아닌 모세 같은 선지자이다
위에서 설명을 한 내용을 보면 구세주는 예수가 아님이 분명히 증명이 되는 것이다. 그 외에도 예수가 구세주가 아님을 증명할 내용은 너무나도 많이 있다. 그러나 그 모든 증거를 다 들어 설명을 하려면 너무나도 많은 지면을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다음의 내용만 소개하고 마무리를 하겠다.

요한복음 5장 45절에 다음과 같은 말이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은 예수가 한 말이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송사할까 생각지 말라. 송사하는 자가 하나 있음에 곧 모세니 너희의 바라는 자라"라는 말을 예수는 해 놓았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기독교인들은 일제히 예수가 인류를 심판을 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여기의 예수의 말은 분명히 모세가 와서 너희를 하나님께 송사를 한다고 한 것이다. 분명 예수가 송사하고 심판한다고 하지 않았다. 이 말은 예수 자신이 심판자인 구세주가 아니라는 말이 된다.

또 누가복음 16장 31절을 보면, "가리대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사람이 죽은 가운데서 살아날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 말도 예수가 비유로 한 말이다. 즉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죽어 부자는 지옥이라는 곳에 갔고 거지 나사로는 천당이라는 곳에 갔는데 지옥에 간 부자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간청을 하기를 세상에는 자기의 형제 다섯이 있는데 제발 그 형제들이 자기와 같이 이곳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면서 나사로를 살려서 자기의 형제들에게 보내서 내가 지옥에서 고통당한다는 사

실을 알려주면 그 형제들이 듣고 지옥에 오지 않으려고 열심히 착하게 살 것이라고 하였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이 세상에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는데 그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설사 죽은 자가 살아나서 알려주어도 믿지를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는 내용이다. 이 말은 세상에 출현한 모세와 같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천하 없는 이적과 죽은 자가 살아나서 증거하여도 듣지 않는다고 한 말이다. 여기도 예수는 모세를 중요한 주인공으로 예를 든 것이다.

또 신명기 18장 18절과 사도행전 3장 22절에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지니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시킬 것이라 하였으니" 라고 말하여 모세같은 선지자가 어떤 존재이라는 것을 크게 부각을 시켜 놓고 있다.

이 성경 내용을 보면 모세같은 선지자는 굉장한 존재인이 틀림이 없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예수의 제자들이 모세 같은 선지자를 예수라고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의 제자들은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모세 같은 선지자는 분명 구세주를 가리키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다. 옛날 출애굽 당시의 모세의 역할은 분명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게 구세주였다. 그러므로 모세같은 선지자를 알리면 당시의 육적 모세가 행한 것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해야 모세 같은 선지자가 되는 것이다. 그와 같은 모세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분은 분명 인류가 고대하는 구세주가 틀림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는 전연 모세 같은 역할을 한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다.*

화가 없드려 있는 곳에 있다

孰知其極(숙지극): 그 지극함을 누가 알겠는가

其無正(기무정): 그것은 정해진 것이 없다

正復爲奇(정복위기): 바른 것이 기괴하게 돌아오고

善復爲妖(선복위요): 선한 것이 요사하게 돌아오고

人之迷(인지미): 인간의 미혹됨이

其日固久(기일고구): 그 날이 굳어지고 오래돼서다

是以聖人方而不割(시이성인방이불할): 그러므로 성인은 사방으로 열려 있지만 나뉘지 않는다

廉而不刺(염이불자): 청렴하되 꾸짖지 않고

直而不肆(직이불사): 곧되 방자하지 않으며

光而不耀(광이불요): 빛이되 빛을 드러내지 않는다.*

김주호 기자

도덕경 해설

도덕경 58장 해설

도의 세계와 속세와는 정반대임을 누가 알겠는가! 오직 깨달은 자(도인)라야만 알 수 있다. 노자가 이르기를 강하지 말고 약하라고 하고, 뻣뻣하지 말고 부드러운지라고 한다. 또 높아지지 말고 낮아지라고 하며, 많이 쌓아두지 말고 아낌없이 비우라고 한다. 이러한 마음의 경계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한심스럽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치부한다.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갖고 싶은 것도 많고, 누리고 싶은 것도 많은데 그것이 가능이나 한 말인가. 되레 역정을 내지 않으면 그나마 다행한 일이라 할 것이다. 한자 개인의 마음의 경계를 말할 때도 이리하거늘 한 나라와 수많은 백성들의 일이라면 오죽하랴!

도가 없는 세상에서 정치를 할 말

할라치면 정치 지도자가 너무 똑똑하여 온갖 법과 제도를 강제하여 세상을 바로잡으려 하지만, 도(道, 本心)가 없어서 욕심이 주는 마음이 본래의 자신이라고 믿는 개개인의 마음을 어찌 역지로 바로잡을 수가 있겠는가? 속칭 말로 안 되는, 말이 안 통하는 지금의 시대를 비유할시대라고 통칭할지도 모른다. 말만 비단처럼 아름답게 청산유수처럼 짙짙 잘 해봐야 통하지 않는 세상이다. 오직 의와 진리와 선한 행으로써 사람의 마음을 감화 감동하여 순응하게 하는 눈으로 보여주는 것이야 통하는 시대이다.

이러한 이치를 깨달은 자, 도를 얻은 자만이 그 무도한 인생들의 마음을 얻어 무욕과 무위의 행으로 스스로 지켜 나아가게 할 수 있다

福兮禍之所伏

복혜화지소복

복은 화가 없드려 있는 곳에 있다

하였다. 도가 곳곳에서 넘쳐나면 가정에서는 부모가, 사회에서는 사회적 지도자가 술선수범하여 위에서 아래로 물 흐르듯이 자연스레 세상이 올바르게 치리될 것이다.

그런데 세상은 왜 이리 제각각이고 의견이 분분하고 어수선한 세상이 되었는가? 나와 남, 인간과 만물, 우주 삼라만상, 그 나뉘지고 쪼개지고 갈라진 천대만상이 하나의 근원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모르는 무도한 사람들로 넘쳐난 세상이기 때문이다. 깨친 사람, 도를 얻은 사람은 모든 사람과

만물이 나와 다른 이질적인 존재가 아니고 본래가 하나였음을 절실히 깨달아 아는 자이다. 해서 본래가 하나임을 아니 특별하게 무엇을 남보다 더 가지고, 더 누리고, 더 높아지고 나아지려 할 수 있겠는가. 모든 번민과 고통은 나와 남을 구분해서 더 욕심껏 살고자 하는 데서 비롯된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잘 알고 있는 것을!

화가 복은 종이 한 장 차이이다. 욕심을 버리면 복이 되어 돌아오고, 욕심이 극에 치면 화가 되어 돌아오니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한 가정이나, 이웃, 사회, 국가, 세계가 안녕과 평화의 이상세계가 정착이 되려면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성원이나 나의 이기심과 욕심을 버려야 한다. 인간의 참행복(해



당신을 영생의 세계로 안내하는 승리신문
성금계좌 : 우체국 103747 - 02 - 134421 예금주 : 이승우
독자님들의 정성어린 성금이 영생의 세계를 앞당깁니다
전국 각지에서 첫금을 보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승리신문 1990. 3.3 등록번호 다 - 0029
발행인 겸 편집인 김중만
본지는 구세주(정도령, 미륵불)께서 말씀하신 사람들이 실제로 죽지않는 원리(영생학)를 누구든지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질병과 죽음의 없는 개벽된 세상을 만들고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 우 14679 홈페이지 www.victor.or.kr
광고 및 구독신청 전화 032) 343-9985 FAX 032) 349-0202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